

반역 《정권》 하에서 불행과 재난이 가시여질수 없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의 재앙거리

대답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사기자는 남조선정세전문가 안세영과 대담을 가졌다.

기자: 먼저 력객선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남조선 민심의 동향이 어떤지 말해 줄수 있는가.

안세영: 전라남도 진도앞 바다에서 력객선이 침몰하여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한달이 되었다.

이 기간 온 남조선땅이 눈물바다로 변하고 도처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있다.

더우기 사고과정에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비인간적 행위들과 책임회피, 강압적인 여론조작과 《북풍》몰이 등이 내외의 커다란 비난과 격분을 자아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부〉는 살인마》, 《다이아만드가 아니었다》,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초불시위, 침묵시위, 《초불평화대행진》을 비롯한 각종 시위투쟁들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지역에서 벌어진 반 《정부》 집회와 시위에 40여개 단체의 연 1만 5 000여명이 참가하였지만 5월에 들어와 5일까지 사이에 160여개 단체에 연 20여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박근혜의 지지율이 력객선 《세월》호침몰사고 이후 20%나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20~50대의 연령층속에서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고 부정적인 평가가 50%로 높아져 이목을 끌고있다. 지역적으로 보아도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지역에서는 부정적평가가 50%이상에 달함으로써 긍정적평가를 압도하고 보수의 《러발》이라고 하는 경상도지역에서도 부정적평가가 40%계선에 이르고있다 한다.

기자: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쌓이고쌓인 민심의 폭발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는가.

안세영: 그렇다. 남조선에서 박근혜 《정권》이 출현한 때로부터 1년 수개월이 된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행적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으로 흘러온 나날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경주체육관붕괴사고 (2014. 2. 17) 현장과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는 대학생들



남 조선 에서 각 종 사 고 들 이 꼬 리 를 물 고 일 어 나 고 있 다.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열망을 무시막지하게 총칼로 짓밟고 권력을 강탈한 5.16군사쿠데타가 있는 때로부터 53년이 되었다.

미국의 지령에 따라 군사정변을 단행하고 권력을 강탈한 박정희역도는 18년간이나 장기집권을 하면서 온 남조선땅을 사람 못살 민주, 인권, 민생의 폐허지대로 만들었다.

중앙정보부와 《보안법》을 비롯한 파쇼탄압기구들과 각종 살인악법들에 의해 레로와 알인, 고문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 인민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유신》독재시대에 온 남조선은 하나의 칠칠같은 감옥으로 화해되었다. 그 감옥의 최고간수는 박정희였다. 박정희 최고 군사 파쇼도당은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북남대결에 악랄하게 매달렸으며 온 겨레의 통일념원에 도전하여 군사분계선 전구간에 걸쳐 대결과 분열의 풍크리트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수 없는 민족반역행위도 저질렀다.

최에는 별이 따르기마련이라고 《유신》독재자는 남조선인민들과 겨레앞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으로 하여 융당한 력사의 벌을 받고 비명횡사하였다. 그 때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집권하기 바쁘게 미국을 행각하여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한미동맹강화》를 씌부렁냈는가 하면 온갖 야양을 떨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를 구걸하는 등력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추악한 사대매국노의 본색을 드러냈다.

동시에 동족과는 한사코 대결을 추구하면서 체제대결, 《흡수통일》야망을 포괄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당이 집권 첫째에 벌써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도발》로 걸고들면서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앞장서 날뛰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그 누구의 《군사적도발》을 운운하면서 《도발원점》에 대한 《최절한 타격》이니,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나발로 국도의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이러나 《원칙고수》를 제창하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단국회담을 파란시킨것도, 류레없는 내란모사건진작과 철도로조에 대한 강경진압, 《중북척결》소동과 《마녀사냥》 등으로 남조선의 련북동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무덤하게도 북남수대상봉 담화록까지 공개하는 란동을 부린것도 다름아닌 박근혜 《정권》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서해 5개 섬 열점수역에서의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대담해나섰는가 하면 미국의 《B-52》핵전략폭격기편대들을 끌어들이 하루종일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연습에 돌아치게 하고 끝끝내는 도발적인 《키리콜라》, 《독수리》북침전쟁연습의 강행으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파탄시켜버렸다.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위협하는 비방증상에 열을 올린다 못해 최근에는 그 무슨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불어댔다. 박근혜당당의 반민족적행위로 동족대결이 극도로 격화되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반인민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있다.

집권후 임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있다.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 《시간선택제교원》, 《대학입학시험제도》 같은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서울 송파구 세 모녀자살사건을 비롯한 자살사건들과 경주체육관붕괴사고와 유조선원유유출사고, 《세월》호침몰과 같은 대형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총체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집권 1년 수개월동안 경제와 민생이 더 파탄나고 각종사고와 범죄, 사회악이 극도에 달하였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의 집권을 가리켜 《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었다》, 《박근혜만 행복하고 국민은 불행》,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시대가 도래한 암흑의 나날》이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뽑은것이 후퇴한다》고 분노를 터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가 규탄하듯이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애당초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화근이고 천하의 재앙거리 《정권》이다.

이런 《정권》이 계속 존속하는 한 남조선에서 《세월》호와 같은 참혹한 재난과 불행은 계속 뒤따르게 되고 온 민족이 전쟁의 재난을 들쓰게 될것이다.

전대승원전선박근조장에서 화재사고 (2014. 4. 21)

서울시강남도에서 열자충돌사고 (2014. 5. 2)

남조선에서 박근혜와 《세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있다. 얼마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집권자의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의하면 부정적평가가 과반수에 달한다고 한다. 《세누리당》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느 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세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시기에 비해 12%나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 상당한 결과가 아닐수 없다.

지난 《대선》때에 박근혜가 그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으며 민심을 유혹하기 위해 갖가지 공약들을 람발하였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그 많은 공약들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말았다. 그 무슨 《기초연금보장》이니, 《반값등록금실현》이니, 《지방발전추진계획》이니 하는것들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지 오래다.

더우기 얼마전 진도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참사는 한 집권세력의 추하고 더러운 반인민적정체를 속속들이 발가놓았다. 《정권》출현시 《안전한 사회》를 떠들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호침몰이라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커녕 똑바른 구조대책 하나 세우지 않아 술한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게 만든것이 부패무능한 현 남조선 《정권》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데신 뻔 뻔스럽게도 책임회피놀이과 파쇼, 동족대결에만 매달리고있는것도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민심의 버팀을 받고있는 가련한 《정부》

웃물이 맑아야 아레물이 맑다고 장관들과 공무원이라는자들은 실음에 복받쳐있는 유가죽들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가 하면 계절스럽게 음식을 먹어대며 돌아쳐 여론의 비난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세누리당》 역시 레외가 아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4월 18일 《세누리당》 세종시장후보로 선출된 현 세종시장인 자기를 지지하는 어느 한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등 해피망측한 추태를 부려 만사람의 비난거리가 되었다. 며칠후에는 《세누리당》의 어느 한 시장에비호가 자기의 선거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옷

을 입고 행사장에 나타나 제 이름이 찍힌 명함장을 나누어 주었는가 하면 또 다른 예비 후보 역시 지지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봉투를 뿌린 사실도 드러났다. 《세누리당》의 이러한 비법적인 《선기》운동은 지금 서울과 인천, 포항, 경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연이어 발견되고있다. 한편 《세누리당》패거리들은 현 《정권》을 규탄하는 각계층을 《북지령》에 놀아나는 파과단체》, 《중북세력》으로 몰아대면서 급속히 침몰하는 《박근혜》호를 건져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현 남조선땅이 《세월》호참사로 슬픔과 분노에 잠겨있는 때에 이에야 아랑곳없이 권력유지를 위해 구차스러운 지지구걸놀이과 때아닌 《중북소동》에만 매달리고있는것이 바로 박근혜와 《세누리당》패거리들이다. 그러나 민심이 등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 각계에서 다가오는 6월4일지방선거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노의 웨침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성증삼

단상 이 손이 결국 내 아이를...

이 만화는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2014. 4. 30)에 실린 만화이다. 침몰한 《세월》호현에서 무릎꿇고앉아 《사파드립니다... 당신을 뽑은... 못난 국민이라서...》라며 속죄의 고백을 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남조선주민. 이것이 어찌 만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랴. 지금 수많은 남녘의 남녀로소가 이런 말을 속으로 외우며 저마다 가슴을 치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고있다.

사람의 인생에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화사한 그 웃음에 속아, 달콤한 그 거짓공약에 속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만 돌아온것은 《세월》호의 침몰이었고 수백명 아이들의 생죽음이였다. 결국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로 이어졌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내 자식들을 만사람이 보는 앞에서 차디찬 바다속에 처

넣고 생죽음시켰으니 청와대주민을 잘못 뽑은 후과가 이처럼 참혹한줄을 이제 와서 뼈에 새기며 가슴을 팡팡 두드리건만. 후회되는 언제나 때는 법이라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가슴에 맺힌 한은 영영 풀수 없는것으로 되었으니. 《사파드립니다...》-그것

은 떠나간 아이들에게 비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속죄의 목소리.

《당신을 뽑은...》-그것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비통한 참회의 눈물. 《못난 국민이라서...》-그것은 두번다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비장한 각오와 맹세의 웨침이다.

한강성



그 애비에 그 딸

분식하며 《유신》독재부활을 공공연히 기도한 그는 미국의 적국적인 비호밑에 불법적으로 정와대안방자리를 차지한 이후에는 《유신》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파쇼통치와 반북대결소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권력욕에 환장한 박근혜는 각계의 요구대로 불법선거행위를 인정하고 물러날 대신 정보원을 내몰아 갖은 모략과 기만술책으로 민심을 우롱하는가 하면 《중북》소동과 동족대결, 북침전쟁소동으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있는 최근의 《세월》호침몰사건은 박근혜야말로 《유신》독재자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 살인마라는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수백명의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차디찬 바다물

속에 수장시키기도 그 책임은 회피한채 미국상권을 끌어들이 회회터지려 동족대결만 일삼은 박근혜의 죄악은 두고두고 용서받을수 없다. 이것도 모자라 얼마전에는 저들이 저지른 《세월》호참사를 조성된 최악의 《정권》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무인기사건》이니 뭐니 하는 《북풍》조작소동에 매달리면서 군부장관을 내몰아 입에 담지 못할 악담으로 북을 칠대는 특대형도발행위까지 저지르며 감행하였다.

그 애비에 그 딸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여 《유신》독재자가 저지른 죄악이나 그 딸이 꺾 행한 죄악은 어느 하나도 다를바 없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부활되고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과상태에 빠져 행진정위험마저 극도로 고조되고있는 현실은 박근혜야말로 온갖 악의 근원이고 민족의 재앙거리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보수세력들의 기만에 속아 《대통령》을 잘못 뽑은데 대해 뼈저리게 통탄하며 후회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력사의 심판은 공정하다.

시대의 흐름과 인민들의 요구를 정면에서 거역하며 파쇼독재통치와 반북대결소동에 파는이 되어 날뛰는 박근혜당당이 제 애비와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하는것은 자명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박근혜》호의 침몰은 시간문제

《세월》호참사는 수백명의 아이들이 바다속에 수장한 박근혜 《정권》의 반인민적이고 반인륜적인 정체를 날같이 드러내보여주었다. 진도앞바다에 배가 침몰하여 아이들이 숨지는 순간까지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참사후 구조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살려낼수 있는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청와대에 찾아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목러지게 부르짖는 피해자가죽을 매몰차게 차버린 박근혜이다.

실종자가족들이 침식을 잃고 울고불고하는 그 마당에서 라면을 먹어대고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보고가라는 유가족들의 호소에 시간이 바쁘다는 구실을 내대고 뺄소니치고 차마 말로는 형언하지

도 힘든 학부형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모욕하는 망발을 해대는 그런 짐승보다 못한 무리들이 바로 박근혜와 그의 수하층들이다. 그것도 모자라 남조선집권자는 바다에서 시체를 한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 노력할 대신에 오히려 《북부인기사건》이니 《핵위협》이니 하며 모략적인 《북풍》소동에 매달리고 《세월》호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무장anel를 쓰고있다.

초상난 집에 미국상선을 끌어들이 동족대결의 찬바람을 일구어대는 그 행위에 남조선인민들은 침을 뱉으며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고 웨치며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한 반 《정부》투쟁에 열기부하있다.



《세월》호참사를 조대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재미동포들

지난 10일 남조선에서 건물붕괴사고가 일어나 소동이 벌어졌다. 중측공사가 한창이던 서울 강남구의 4층짜리 건물들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가스관까지 파손되었다.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가득이나 수백명의 생명이 날바다에 수장된 《세월》호참사로 온 남녘땅이 초상집이 된 때에 시신을 한복판에서 일어난 붕괴사고로 지금 남조선은 말그대로 아비구환의 수라장으로 되고있다.

이미전부터 남조선에서는 상상만 하려고 소름이 끼치는 대참사가 계속되어 사람들의 공포를 자아내곤 하였다.

문제는 사고가 연발할 때마다 남조선인민들의 성토가 비발했지만 통치배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로부터 사고위험이 남녘땅 그 어데나 도사리고있으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있는것이다.

《문민정권》이 서울의 성수대교붕괴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그때로부터 1년도 안되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무려 1 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것은 그 한 실례이다.

리병역적도 집권을 계기로 서울의 승례문이 화재로 붕괴되어 내외의 규란을 받으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반인민적악정을 되풀이한데로부터 그의 독재통치 전기간 도처에서 건물붕괴, 폭발

및 화재사고 등 각종 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인민들의 목숨은 어떻게 되든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당국의 뿌리깊은 통치방식은 박근혜가 집권해서도 계속되고있다.

《세월》호침몰원인중의 하나가 당국이 규제조치를 아무런 고려도 없이 완화시킨데로부터 돈벌이에 환장한 경영업체가 제멋대로 배의 구조물을 무리하게 중측하고 집을 초과하여 실은데 있다는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대참사방지대책을 세우야 할 책임마저 회피하였다. 《세월》호가 침몰된지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만도 서울의 지하철에서 편차가 충돌하고 지상에서 전물이 붕괴되는 사고들이 연발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박근혜당당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대참참사가 벌어질지 몰라 불안속에 살면서 온 남녘땅이 무너져 않는 환골을 느끼고있다.

《현 〈정권〉에 대한 기대는 허물어졌다》, 《이날 사회가 무너지고있다》, 《울분의 목소리가 남조선 각계에서 터져나오고있다》, 《주권력력을 위해서는 부정협잡을 비롯한 갖은 수단을 다하면서라도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패당이 집권해있는 한 남조선에서 대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본사기자